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오전 11시

교회소식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주일예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부르심

부르신 곳에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아무 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 633)

사도행전 9:1-19

“원해”

“다시 보게 되리라”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 586)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정-이호경” 성도입니다. 환영합니다.
3. 다음 주일은(11/22) 추수감사주일 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4. 추수감사주일에 특별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번 추수감사헌금은 전액을 예배당 건축헌금으로 사용합니다. 리스트를 참고하셔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공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공동의회가 있습니다.
7. 2021년 주소록 제작을 위해서,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양명철)
8. Covid-19 감염으로 인해 계속해서 주일예배를 현장예배와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배당 입장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연락되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문의-양명철 718-772-5290)
9.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10.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며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1,116,535

추수감사절 건축헌금에 대하여

오늘 나누어 드리는 리스트의 제목이 “건축헌금을 위한 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예배당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한 리스트입니다. 현재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당 건축을 진행하면서도 이 정도어려움만 있다는 것이 놀라울만큼 감사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 예배당 입당이 가까운 이 때에 건물만 완공된다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번 건축헌금의 초점은 예배당 기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헌금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하고 헌신하는 것이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성도들의 삶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반대편에도 서게 됩니다.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제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이 완공되어서 들어가는 날 헌신하지 않은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당 완공에 어떤 부분이라도 헌신한 참여자로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성경에도 정말 어려운 시기에 성막을 세웠던 광야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정말 힘들었던 그 시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건축위원회 속한 한 장로님이 제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예배당에서 자신이 앓을 의자는 스스로 헌금하고 들어오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나아가서는 자신 만이 아니라 전도된 사람이 앓을 의자도 헌금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헌금을 말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예배당 입당할 때 모두가 기뻐하는 참여자가 되도록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